

# 제 값하는 강진군 '반값여행' 정책

자치CEO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이 추진하는 '반값여행' 정책은 단순한 관광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정책은 강진군 연간 예산 6400억원 중 1%도 되지 않는 6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몇 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불황과 경기침체 시기에 필요한 경기부양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경제학에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경제에 투입하면 그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관광객이 강진에서 10만원을 소비하면 이 돈은 단순히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 주체를 거치며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관광객이 숙박업소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 해당 숙박업소는 이익 중 일부를 직원 급여로 지급하고, 직원은 다시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돈이 순환하며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또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가 아닌, 지역 상권 중심의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다. 한 관광객이 지역의 유명 한정식집에서 2만원짜리 식사를 하면, 해당 음식점 주인은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매한다. 시장의 채소가게, 정육점, 수산물 가게는 증가한 매출을 바탕으로 농어민에게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강진군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강진군은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값여행'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관광객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또 농수축산업 종사자에게는 간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소비 유도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숙박업, 요식업뿐만 아니라 카페, 기념품점, 전통시장, 체험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활력을 찾게 된다.

'반값여행' 정책의 효과는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2024년 강진군의 관광객 수는 2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만명, 18.5% 증가했다. 지역 상인들은 매출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한 숙박업소 주인은 "예전에는 주말에만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일에도 예약이 찬다"고 말한다. 또 한 지역 식당 주인은 "관광객이 많아지니 지역 주민들도 외식을 더 자주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반값여행 정책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진군의 이 정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기존의 단순한 관광지원 정책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단순한 할인이나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는 반면, 강진군은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직접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가 일어나면, 지역 내에서 돈이 돌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형성된다.

특히, 강진군은 관광객이 여행 후 사용한 금액을 증빙하면 해당 금액의 50%를 강진사랑상품권(Chak)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상품권은 오직 강진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입된 돈이 지역 경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순환하게 된다. 이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강진군의 경제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은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경기부양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강진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작은 군 단위에서 시작한 이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은 단순한 여행 장려책이 아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이 정책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지방 경제 활성화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김윤자 농협광주본부 경영기획단장

# 농가와 상생하는 농협 거듭날 것

2024년 한 해 동안 농협광주본부는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 없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강화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모두 농업인과 지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지난 한 해 주요 성과로는 첫째 쌀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쌀 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한국 농업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포함한 96건의 캠페인을 전개하며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특히 광주시 서구청 등 41개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쌀소비촉진 MOU체결을 통하여 쌀 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캠페인에 덧붙여 MOU체결은 단순히 쌀 소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식탁에 담긴 쌀 한 톨 한 톨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둘째 영농인력 지원 및 재해 복구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드렸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우리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농촌인력증가센터는 1만 9800명의 인력을 지원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냈다.

특히 대학생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3022명의 무상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영농 현장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태풍과 집중호우, 일조량부족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해당농협대상 50억원의 재해복구 무이자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영양제 780개를 배부하며 재해 복구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셋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농업 경쟁력은 우리 농촌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이를 위해 지역농업발전사업에 14억원 이상을 투입해 잔류농약 검사와 드론·농기계 지원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생산성을 높였다.

소외계층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복지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넷째 도시와 농촌을 잇는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삶과 치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교통공사 및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팜스테이 마을 운영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으며 농촌은 도시와 상생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다섯째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디지털 전환은 현대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발맞춰 디지털 플랫폼인 'NH 오늘농사' 조합원 가입 추진 달성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영농 지원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또한 NH폭뱅크와 마이데이터 이용자 수가 목표치를 초과하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성과는 농업인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지난해 이루어진 성과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지역 농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농협은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571 2024고합119, 2024고합22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 박준영

위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2. 18.  
판사 박재성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4,100,000,000원중 금 3,2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 9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자본감소결의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중 소각을 희망하는 주주에게 320,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지급하고 그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기로 하였음. 이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키 바라며, 본 회사의 구조권을 소지하신 주주는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다산메이저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학장용산길 101 대표이사 이애자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개강일 무료참관 가능**

- 일시: 2025. 3. 10(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5. 3. 3(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OO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 천기비법 대공개
-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발동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시엔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